

웹 그래픽에 나타난 수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hetorical Characteristic mentioned in The Web-Graphics

김민수(Kim Min-Soo)

한림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웹 서비스 및 디지털컨텐츠전공

1. 서론

- 1-1. 연구목적과 범위
- 1-2. 수사구조의 확장된 개념

2. 수사구조의 확장과 웹 그래픽

- 2-1. 은유
 - 2-1-1. 웹 이미지에서 은유활용
- 2-2. 환유
 - 2-2-1. 웹 이미지에서 환유 활용
- 2-3. 제유
 - 2-3-1. 웹 이미지에서 제유 활용
- 2-4. 아이러니
 - 2-4-1. 웹 이미지에서 아이러니 활용

3. 결론

참고문헌

(要約)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사구조를 이용하여 웹 그래픽에 나타난 특성과 상호 관련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언어구조에 제한하던 수사학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데 있다. 연구를 위해 네 가지 수사구조(은유, 환유, 제유, 아이러니)를 설정하여 홈 페이지의 웹 그래픽의 재료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개별적 그래픽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호학적 관점과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 해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모색할 수 있었다.

- 웹 그래픽은 기호의 본질적 특성인 차이로 인한 기호화 작용에 관여한다.
- 웹 그래픽은 서술구조에서 출발하여 상징화구조로 이어지며 이때 응축(凝縮)과 전이(轉移)작용을 중심으로 해독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 웹 그래픽은 수사학적 코드를 활용하여 기저의미(基底意味)의 해석소를 제공하며 수용자의 인식과정에 작용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understand correlation between an appearance of the web-graphics and rhetorical analysis.

This paper was adopted semiotic approaches and four rhetorical tropes as follows metaphor, metonymy, synecdoche, irony.

The web-graphics are parts of the web-contents that are increased continuously in the web-space these day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 of individual web-graphic this study selected semiotic framework and analysis meaning of the rhetorical trop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founded as follows:

- Rhetorical graphics are produced linguistic features between human and signs for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the signification.
- Rhetorical graphics offer to the users the clue of the decoding processes through the narrative structures to symbolic schema. besides, these are operated limited framework of condensation and displacement.
- The web-graphics participate human's recognition processes and rhetorical cod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ign-vehicle of the deep-structures.

(Keyword)

Web-graphic, Rhetorical Tropes, Recog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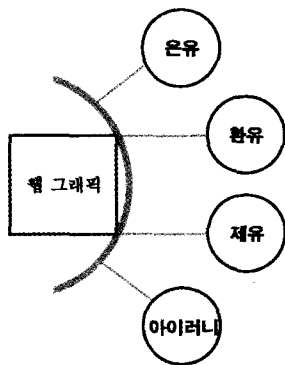
1. 서론

1-1. 연구목적과 범위

인류의 소통 방식은 과거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할 수 있다. 인류가 소통을 시작하면서 역사적으로 말 또는 글자나 그림의 시대가 강조되는 시대적 변천을 겪으면서 작금에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기호를 매개로 한 정보가 중심이 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소통을 위한 정보는 팽창의 일변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정보는 통사론적 단계의 범주를 넘어서 기호 체계를 바탕으로 의미적이고 맥락적인 생산과 그 소멸과정에 관여하는 등 그 폭과 깊이를 더하고 있는 추세다.

웹이라는 통합 매체에서 그 콘텐츠를 구성하는 하위 기호체계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글, 그림의 현실적 기호들이 이동을 하여 이 공간에서도 현실개념의 기호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기호들은 소통에 관여 하면서 인간 상호간의 관계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미지는 웹을 구성하는 콘텐츠 요소 중의 하나로 그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에 있어 미학적, 유희적, 마케팅의 소재로써 웹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웹은 그 역사가 짧은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웹의 정보구조나 사용성에 관한 여러 방식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개별적 기호체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호 요소 중에서 웹상에서 이미지에 관한 쓰임새를 살펴 이를 통해 수사 구조의 분석틀을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소통에 관여하며 또한 변별적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수사구조는 어떻게 사고하는가에 관한 단순한 표현 방법이 아니라 소통을 매개하면서 사고방법 그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우리의 의식 구조에 관여하고 소통에 기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웹 공간에서 효율적인 기호체계들의 활용을 통한 소통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소통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웹 그래픽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여 수사적 기법을 활용한 웹 페이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웹 그래픽의 내적 특성과 외적 구조의 연관관계를 도출하여 언어구조에 국한하던 수사구조의 활용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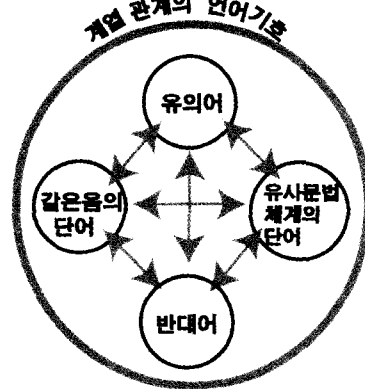
[그림 1] 웹 그래픽과 수사학적 관계

1-2. 수사구조의 확장된 개념

언어구조에 있어서 수사는 사고에 대한 관념들의 변형과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사고의 방법에 관한 기호의 인식작용에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구조에서 수사는 텍스트와 이야기 구조 안에서 모든 종류의 담론에 관하여 재해석 되는 기능도 포함을 한다.

개인적 또는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발하는 수사적 코드의 공통된 해석에 기초하여 공유되어진 관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각들을 암묵적인 동의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야콥슨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은유와 환유)으로 인하여 해석화 과정에 기여 하는 것으로 보았고 본 논문에서는 수사학적 코드의 범위를 넓혀 그래픽과의 관련적 특징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문체적 특성이외에 그래픽 이미지가 생산하는 수사학적 방식이 더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언어구조에 있어서 의미는 기표들의 결합구조에 의해서 생성된다. 보편적으로 개별기표들은 각각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각각의 그룹화된 기표들은 다른 기표들과의 조합으로 재활용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조합들은 크게는 언어의 한 패러다임을 구성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언어학적 패러다임

비유(比喩)의 범주 안에서 이 구조는 어떤 기호가 다른 기호를 전이시키는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마치 서술적 사고를 토대로 상징적으로 묘사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술적 사고는 표시되어진 기호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호개념 사이에서 느낌의 동일성을 유지시킨다. 마치 아이론과 같은 역할을 하며 상징적 사고는 그 개념을 상징화시켜 깊은 심상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고개념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수사구조라 할 수 있다. 즉, 형식을 갖춘 컨텍스트 안에서 이 구조들은 우리들에게 생산되어진 기호를 끝없는 변형적 사고로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적 코드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어떻게 물체나 텍스트가 표현되는가? 라는 측면 보다 그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나에 중점을 두어 파악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코드를 매개로하여 기호학적 작용을 통하여 동작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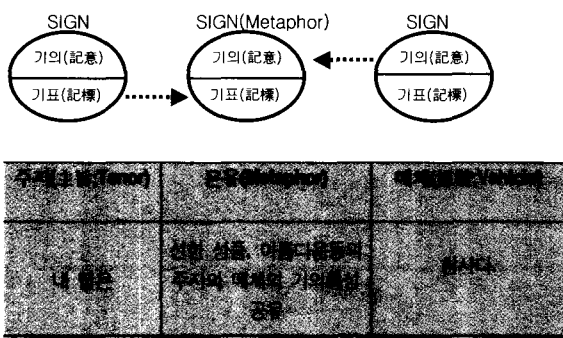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서 제시한 네 가지 수사적 코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수사구조의 확장과 웹 그래픽

2-1. 은유(Metaphor)

은유는 기호를 나타냄에 있어 기표가 언급하는 기의특성을 표면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기표 속에 감추어진 내적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연적으로는 그 의미를 전달함(주지와 매체사이에서)에 있어 표면적으로 기표의 외연적 유사성과는 거리가 있다.

[표 1] 메타포의 기호특성



위 모델에 의거하여 메타포를 살펴보면 메타포는 또 하나의 기호를 생성시킨다 할 수 있다. 하나의 의미(메타포)를 나타내기 위해 매체의 기의는 이동을 하게 되고 매체가 가지고 있는 기표특성은 소멸된다. 대신에 주지가 가지고 있는 기표특성이 메타포의 기표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교환 작용을 거쳐 메타포가 형성된 다 할 수 있다. 결국 주지와 매체의 기표 특성은 공유 하지는 않지만 두 물체 사이에 있어 기의(의미개념)는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내 딸은 천사다.'라는 표현 [표 1]에서 이 문장은 주지와 매체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주지는 드러내려고 하는 사상이나 관념에 해당하고 매체는 드러나는 수단이나 표현 방식을 얘기한다. 문학에서 둘 간의 관계적 정의는 유사적(有似的)관계가 내제되어 있어야 하고 이 둘 간의 개념(주지와 매체사이)을 동일개념으로 이끌어 내는 심리적 근원지로 유추(類推)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들의 상상력의 소산으로 발견되어진다.²⁾ 메타포는 주지와 매체 상호간에 외시적으로 다른

1) 메타포는 언어사용에 있어서 전이(transference)를 뜻하는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그것은 개념을 지칭하기 위한 다른 개념의 물체로 치환 될 수 있다. 명목상 메타포들은 명사를 활용한다. ("내 마음은 호수다.") 동사를 활용 할 경우에는 단정적인 의미가 생기는데 '날다'와 같은 동사의 활용에 있어서는 문어적으로 공기의 운동성을 수반하는 의미를 가진다. 공기를 통해 '날다'라는 의미는 속도를 나타내는 전형의 의미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문장구조('A는 B'이다)에서 'A'와'B'의 특성에 의하여 동질 한 형태로 이해 될 수 있다. Raymond J.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A Wiley Interscience publication, 1984, pp.535-536 발췌해 재구성

2) 김용직의 3인공저의 책: 문학의 이해,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77-84.(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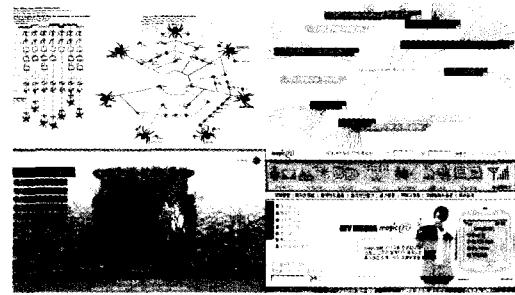
기표를 배치하고,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단일한 기의개념으로 연결시킨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메타포를 바라보면 기호가 나타내는 일반적인 기표(시니피앙)에 대한 관념 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지시하는 실제적인 행위개념으로 기의(시니피에)적 특징을 더 잘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2-1-1. 웹 이미지에서 메타포 활용

웹 내비게이션 구조에서 메타포는 비 친숙한 개념들을 친숙한 개념의 아이콘으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웹 내비게이션의 추상적인 개념들은 아이콘 묘사에 있어서 널리 알려지거나 개념화된 물체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의미전달의 구체성을 확보한다. '네비게이트(Navigate)', '익스플로러(Explore)' 등의 용어는 두 웹 브라우저를 '여행하다'라는 문어적 메타포로 활용되어진다. 이것은 정보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정지의 개념을 나타내는 신호체계의 적색 등은 웹 브라우저의 경우 정보전송의 스크린상의 작동을 저지하는 '스탑'버튼의 개념으로 활용된다.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적색은 위험과 경고의 의미를 위한 공통감각으로 활용되어진다. 이 현실기호들에 관한 개념들이 웹 브라우저의 상징적 메타포를 구성하는 기호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이 메타포 개념을 활용한 웹 페이지를 살펴보자.



- a: 미국의 이해 <http://www.understandingusa.com>
- b: 미국의 이해(사이트 맵) <http://www.understandingusa.com>
- c: 이니스프리. <http://www.innisfree.co.kr>
- d: KTF Magicn. <http://www.magicn.com>

[그림 3] 웹 이미지와 메타포

미국의 이해(그림 a)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문화, 사회등의 포괄적이고 통계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다. 미국의 7대 미디어 재벌들 간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페이지는 거미와 거미줄을 설정하여 마치 컴퓨터망의 노드들을 연결한 것처럼 나타낸다. 각 거미의 특징적 색을 이용해 상호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제시된 맵 구조(그림 b)는 일곱 가지 정도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부여하여 마우스를 끌고 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정보의 구조를 제한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이 지정학적인 메타포는 개념도출단계에서 소나무의 형상구조와 물고기의 시각적 특성을 도입하여 구성하였으

며 제공되어진 확장도구들을 이용하여 현실적인 감각들을 동원해 정보의 근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이콘들은 감각을 위한 재생적 도구로 활용되고 방향성을 가지고 확대되는 정보를 이용해 지장학적인 위치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활용되는 기호들은 지표적인 성격이 짙기 때문에 활용되는 도상들 또한 도상외적 기호인 숫자, 부가기호의 활용, 단위를 나타내는 텍스트와 함께 제공된다. 이 요소들을 첨가함으로써 전체적 의미를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니스프리(그림 c)의 경우 자연기호를 형상화해 자사 제품과 연결시키고 있다. 신선함의 메타포로써 기호를 활용한 예다.

KTF 웹 사이트(그림 d)의 경우 주 내비게이션 메뉴를 계슈탈트 이론의 근접성과 연속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개별적인 도트(dots)는 인접된 픽셀을 활용하여 가로와 세로의 열을 그룹화시켜 도상적 메타포로 활용한다. 협의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기호들의 메타포들은 유연성(highly motivated)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메타포는 외시적으로 표기되는 캐릭터 배치나 사진 묘사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형태와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들 간에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태소가 그러하듯이 최소한의 도상적 형태를 잃지 않고 기호의 지시개념과 연결하기 때문에 유연적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설명한 것처럼 메타포는 원관념의 기호에 보조관념의 기호가 첨가된 제3의 기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같은 계열 수준에서 변형의 징표로 같은 수준의 기호를 선택한다. 이로 인해 무제한적인 의미적 전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엄밀히 정의하면, 텍스트와 그림의 요소 중에서 말이 강조되는 또는, 그림이 강조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림에 주안점을 두는 도상 반영적 메타포(Metaphor of Adopted Icon)와 텍스트를 강조하는 상징적 메타포(Symbolic Metaphor)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에 주안점을 두어 해석하였음을 밝힌다. [그림 1]은 모두 도상 반영적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물론, 웹 사이트 이미지나 시각 기호들의 절대 다수가 이 특성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 대신에 위에서 설명한 트래블 메타포(Travel Metaphor)로 활용되는 브라우저의 경우는 문어적 상징성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 이 경우에는 어표(logogram)적 특성이 강화된 요소로 보아야 한다.

웹 이미지의 경우 메타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여기서 이미지는 기표특성을 공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신에 메타포가 어표 특성이 강해질수록 은유적 특성이 강화되면서 기의특성이 부각된다. 이는 자의적인 연결구조가 강화된거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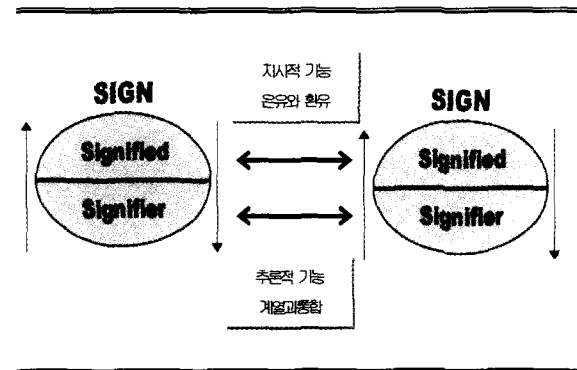
[그림 1]에 국한하면 웹에서 메타포의 활용구조는 이미지 소구적이고 현실세계의 물체를 반영하며 이를 통한 은유적 행위개념으로 이어진다. 또한 물체의 강화도 가공적 개체(Fictional Entities)들도 수용하는 특성도 나타난다.

2-2. 환유(Metonymy)

환유³⁾는 표현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상을 이용해 개념을 연

3) 환유(metonymy): 환유는 언어적 스피치 특징에서 하나의 의미가

결시킨다. [그림 4]에서 보듯이 기호화 작용에 있어서 하나의 기의가 다른 기의를 대체 시키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환유의 기호작용

또한 환유는 메타포 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측면이 강하고 기호 활용에 있어서도 물적 특성을 표현적인 측면과 연결시키는 측면이 더 빈번하다 할 수 있다. 문어적인 구조에서는 별을 장군에, 칼을 무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예다. 기호화자인 예코는 환유에 대하여 의소적 상호 의존성(semic interdependence)에 관한 개념을 제안한다. 첫째, 그것이 속하고 있는 의미소를 대신하는 하나의 표시소이고 둘째, 그 표시소의 하나를 대신하는 의미소로 분류한다.⁴⁾

'대한민국 군대는 육십 만개의 개인화기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문장은 분명 환유적이다. 이 문장에서 개인화기는 군대의 구성원인 병사들의 숫자는 물론 남자를 나타내는 전형의 의미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표시소인 개인화기는 개별적 구성원들을 나타내고 그것은 의미소를 나타내는 대한민국 군대의 전체구성원을 나타낸다. 직접적인 연상을 활용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그림 4]에서 보듯이 기표는 추론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기의는 수사적 코드를 통하여 지시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능은 하나의 기의를 대신(stand for)해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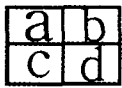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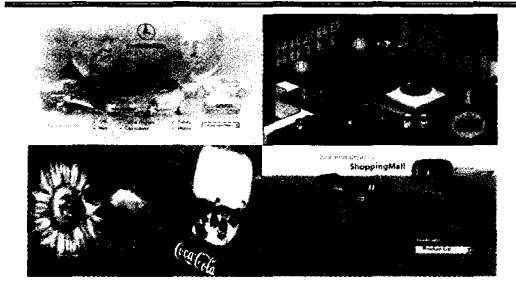
여기서 쌍으로 구성된 기표들은 물적 속성의 공유를 통하여 그것이 표시하는 또 하나의 기의를 대신해서 나타내는데 그것은 원관념을 지시하는 또 다른 원관념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여기서 환유는 연결성을 이용하여 기표들의 위치를 묘하게 바꾸어 놓는다. 이 사건은 기표들의 치환에 있어 동시에 발생된다. 이로 인하여 환유를 실현시키는 창조적 그래픽기표들은 병치적 배치를 유지하며 의미를 진전시킨다.

다른 의미화 과정 또는 원래의 의미를 대신(stand-for) 해서 나타내고, 수사적 특성으로는 시보다는 산문에 가까운 구조다. 의미화 과정에서 물체와 표현체 사이에 직접적인 연상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인을 위한 효과의 대용물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두 기표 사이에 지시적 관계를 수반하기도 하고 이때에 시니피에 특성이 표면화 된다. 여기서 하나의 시니피에는 또 다른 시니피에의 특성을 나타낸다. 어떤 개념 연상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 행위, 태도등에 이 기호들은 활용된다.

<http://www.aber.ac.uk/media/Documents/S4B/se-gloss.HTM>와 같은 웹 문서 " Rhetorical Tropes" (/07.html)에서 빌체하여 재구성

4) 올베르트 예코, 서우석 역:기호학 이론, 문학과 지성사, p.307,1985

2-2-1. 웹 이미지에서 환유의 활용



- a: 벤츠사 홈페이지.
<http://www.mercedes-benz.com>
- b: 하보호텔 홈페이지.
<http://www.habbohotel.com>
- c: 코카콜라 홈페이지.
<http://www.cocacola.co.kr>
- d: 대우자동차 홈페이지.
<http://www.buy.dm.co.kr>

[그림 5] 웹 이미지와 환유

벤츠사 홈페이지(그림 a)의 경우 상층의 이미지는 상징적이고 기술적인 자사 로고와 함께 창업 인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수준의 품질만큼 그에 걸 맞는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 로고는 강력해 보이고 기술적 견고함과 하이테크를 나타내며 인물들은 장인의 신뢰와 기품을 전달하고 있다. 중간 이미지에는 그 부산물들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들이 자리 잡고 있다. 기표들은 표면적 결합을 통하여 직접연상에 작용한다.

[그림 5의 b]의 경우 다중 채팅이 가능한 영국의 온라인 채팅 사이트인데 'Habbo Hotel'은 실제 호텔의 환경을 옮겨 놓았다. 이 같은 의사환경(擬似環境)의 공간은 이미지로서의 새로운 경험적 공간을 최적화 시킨다. 외연적으로는 호텔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채팅을 위한 아이템, 초보자들의 교육, 캐릭터의 선택에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호텔의 매니저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고발하거나 당부의 말을 하는 등 실제 환경의 접촉(contiguity)과 같이 비슷한 개별적 환경들을 제공한다. 이 같은 환경은 체험적 전이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코카콜라의 경우(그림 c)에는 일러스트레이션과 메타포적 도상들의 의인화를 통해 경험적 환기를 유발한다. 이는 부분적인 기표들의 활용을 통한 교환 작용의 의미보다는 접촉에 의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기표활용의 예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환유적 그래픽은 재현성에 관한 묘사적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우 자동차 웹 사이트(그림 d)의 경우 바코드를 이용한 형상화나 미터기의 이미지, 자동차 속도감을 나타내는 장면과 자동차 키 등을 기표로 차용하였다. 자동차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속도감은 자동차 속도를 나타

5) 매스 미디어의 발달은 직접 알 수 없는 먼 곳의 사건을 상징으로써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받아들이는 쪽은 필요에 따라서 직접적인 환경과 마찬가지로 이에 적응한다. 그러나 이 간접적인 환경은 정보원(情報源)에 있는 본래 사실의 실제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으므로 의사환경 또는 준환경(準環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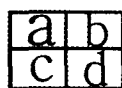
출처: <http://100.empas.com/entry.html/?i=124859&Ad=iyah>(두산세계 대백과 사전)

내는 전형(典型)의 의미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제시된 그래픽에서 환유적 특성은 서술적으로 표현된다. 지시적 기능과 추론적 기능을 통해 하나의 기표적 성격을 다른 기표의 특성으로 전이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서술구조 방식에서 대체는 비동기식이 아닌 동기식 교환 방식에 의존적이 되고 연결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연상을 위한 물체의 비슷한 속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은유가 가지는 변형 보다는 더 현실적인 기표를 활용하게 된다. 순차적 구조를 이용한 인과적 표현, [그림 5]에서는 유사적 환경의 제공으로 인한 체험적 전이로 이어지며 이를 위해 개별 그래픽의 병치적 배열, 같은 계열의 범주적 기표를 활용하여 연결성을 확보 한다고 볼 수 있다.

2-3. 제유(Synecdoche)

제유는 어떤 구조나 체계 안에서 각 기표들의 위계적 관계를 나타낸다. 제유는 표현에 있어서 환유와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은유와, 환유는 기호의 대체에 있어서 외적 구조를 이용하지만 제유는 내적인 연결 구조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유는 환유로 인해 파생되는 특별한 형태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구조 활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유는 위계적 구조의 활용을 들 수 있다. 하나의 개체는 다른 것의 물리적인 부분의 특성을 활용하고, 차용되어진 기호는 연상의 의미를 제한된 프레임에서 프레임의 저편으로 확장하게 되는데 이는 수용자에게 심리적으로 넓은 영역으로 기호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2-3-1. 웹 이미지에서 제유의 활용



- a: 뉴 비틀 홈페이지.
<http://www.vw.com/new/newbeetle>
- b: 몬트레이베이 수족관.
<http://www.montereybayaquarium.org>
- c: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http://www.kia.co.kr>
- d: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http://www.hyundai.com>

[그림 6] 웹 이미지와 제유

환유의 대등한 기표로부터 분리된 제유적 그래픽은 다른 수사구조하고는 좀 다르게 기표의 위계적 동일성의 구조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구조를 활용하여 기계학적 위계구조를 이용한 연결을 시도 하는데

6) 제유(Synecdoche): 인접성이나 접촉에 의해 물체와 표상 사이에서 작용을 한다. 위계적 구조 속에서 관여적이고 기표특성을 강화시키는 특성이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유를 위한 종(음식과 빵), 종을 위한 유(자동차와 달걀), 부분을 위한 전체, 전체를 위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동종이나 이종간 물적 특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피스가 주장하는 지시적 연결 방식을 취한다. 뉴 비틀 웹 사이트(그림 6의 a)에서는 추론적 연결이라고 보다는 직접적인 자동차의 성능과 관련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연결이라 볼 수 있다.

이쿠아리움(그림에서 b)의 경우 각각의 개별 페이지를 연결함에 있어 특징적 바다동물들을 그 기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대표성을 띤 동물을 콘텐츠 구조와 연결 하는데 종(species)과 유(genus)의 생물학적인 속성을 이용하여 활용한 경우다. 이 홈페이지에서 그래픽 이미지, 동영상, 사진, 애니메이션이나 지도등의 데이터베이스는 생물학적인 메타포적 기호로 구성되고 내비게이션된다. 이를 통해 사전적인 지식에 의존적인 경험을 체험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구조로 활용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구조화 시키고 있다.

기아자동차(그림 c)와 현대자동차(그림 d)의 경우 자동차의 체험적 효과를 위한 프레임 구조를 확장하여 자동차의 부분에서 전체로 심리적인 여백의 공간을 확장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그래픽 이미지는 각 자동차 구조의 부분들을 확대시켜 상측이나 좌, 우측에 이미지들을 병치시키는데 이는 심리적 효과를 위한 극대화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 같이 연속적인 연결 구조를 활용한 배치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프레임의 바깥구조로 시각적 메시지를 확대시킬 수 있다. 여기서 그래픽 이미지들은 기술적인 산문 형식에 적합하게끔 제공되어 지는데 시적 특성 보다는 산문에서 이루어지는 순차적인 변형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4. 아이러니(Irony)

아이러니는 제시된 네 가지 구조 중 가장 우스꽝스러운 구조라 할 수 있다.

은유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라면 이 아이러니는 원관념과 또 다른 원관념사이에서 이를 대체시키는 상호 배타적인 의미를 가지고 출발한다. 이 배타성은 이중적 코드를 생산한다. 여기서 코드는 어떤 관념이나 사물에 대한 진이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세 수사구조(은유, 환유, 제유)는 대체에 있어 참조적 정보를 활용하는 빈도수가 높고 물적 특성이나 속성을 이용하거나 공유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 구조는 이보다 양태(樣態)⁷⁾의 이동에 가까워 보인다.

7) 양태는 본 논문의 도상적 텍스트 안에서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문자나 그림의 구성에 있어 상징적 체계를 이용한다. 양태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노출하게 되는데 기술(記述)적 방식으로 사회적 코드와 문어적 코드를 중심으로 활용되어진다. 원활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미디어의 장르 안에서 기호를 수반해서 동작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개념의 의미작용을 위해 형식과 내용의 범주 안에서 사실이나 픽션 또는 이미 기록되어지거나 실제적 사건을 그 소재로 활용한다. 이 재료들은 양태를 기술하기 위해 그럴듯한 말이나 이미지로써 하나의 사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로써 양태는 해독을 위해 하나의 의미적 환경을 통해 그들의 개념을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저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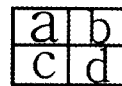
[표 2] 아이러니의 수사구조⁸⁾

구 분	표 현	판 단	지각된 의도
문어적/사실적 (literal/factual)	날씨가 정말 좋다	참(정말 날씨가 좋음)	정보적
아이러닉(ironic)	날씨가 정말 좋다	거짓(날씨가 무시무시함)	즐거움
거짓말(lie)	날씨가 정말 좋다	거짓(날씨가 무시무시함)	오용적

[표 2] 에서 보면 아이러니는 거짓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지각된 의도에서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문어적 측면에서 위에서 제시한 표현은 판단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아이러니도 기호의 기본속성인 기의에서의 구별되어진 속성을 활용한다.

이는 '아' 나 '어' 같이 기표 자체의 구별이라고 보다는 대부분의 수사구조가 그렇듯이 제시되어진 기표와 실제 의미 사이(기의의 의미)에서 차이와 구별을 말한다. 이를 통해 단일한 해석에 의존적이지 않고 이중적 코드를 생산하게 된다.

2-4-1. 웹 이미지에서 아이러니의 활용



- a: 청기와 홈페이지 .
<http://members.tripod.com>
- b: 다음패러디 홈페이지.
<http://myhome.naver.com/2jun>
- c: 댄지일보 홈페이지.
<http://www.ddanzi.com>
- d: 보일아동 홈페이지.
<http://www.ch10.com/webzine~v3>

[그림 7] 웹 이미지와 아이러니

위 웹 사이트에 제한하면 형식(Form)과 내용(Contents)의 요소에서 내용을 구성하는 기표들은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변형의 기표를 활용한다. 형식의 요소인 헤드라인, 일러스트레이션, 링크되어진 텍스트, 로고나 슬로건은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같음을 주장하고 있다.

협의적으로 아이러니적인 기호들에서는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양태를 바탕으로 한 의미전환을 꾀한다. 텍스트를 비롯하여 부가기표의 활용을 통한 드라마적인 구성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수용자는 이 기표(제시된 그래픽이나 텍스트)들의 활용 없이는 명확한 메시지를 포착하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청기와(그림 a)나 다음 패러디 웹 사이트(그림

8) <http://www.aber.ac.uk/media/documents/S4B/sem07.html>

b)는 변형된 기표를 활용하지 않는다. 실제 청와대나 다음 웹 사이트의 아이덴티티를 표면적으로 유지시키는데 로고나 텍스트의 배치 및 레이아웃의 요소를 그대로 끌고 간다. 이는 내비게이션시 경험되어진 익숙함을 활용하고 동일한 심리적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이다. 변형은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컨텍스트는 단순히 소통을 매개하기 보다는 이데올로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수용자는 개별적인 지식, 사회적 이해관계, 문화적 변수등에 부분 이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상보적인 기표들(텍스트와 그래픽)은 의도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적 기표를 활용하는데 텍스트에 맞게 변형(그림 c, d)을 시도한다. 기표의 변형은 조소나 풍자적인 텍스트를 뒷받침 해주고 다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표는 결국에 텍스트가 주장하는 내재적 의미를 공시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회상을 통한 재평가의 기능을 갖는다. [표 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이러니는 의도의 반대편에 있는 기표들을 동참시켜 문어적, 시각적, 심리적 여백을 하나 더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기표는 얼마간의 유머나 조소 또는 풍자를 위하여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계열적인 기표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반영이나 의미의 첨가 또는 다소 회의적인 관점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각 그래픽의 요소들은 문화, 정치 상황에 대한 의존적 코드를 형성한다. 여기서 코드는 상당히 협의적으로 해석되는 요소들을 동반한다.

이들은 불일치에 의한 대체나 발생되어진 사건을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분열로부터 파생된 개별적 텍스트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픽의 발화적 특성은 문어나 구어적 특성을 반영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말해진 것과 의도되어진 것의 양자간의 관계에서 이질적 메시지를 생산하면서 이루어진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수사학적 방법을 통해 웹 그래픽과의 상관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웹은 미디어 특성이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독특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용되는 소재 또한 가공적인 개체를 활용하는 빈도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의 하나인 웹 그래픽을 중심으로 문어적 특성을 웹 그래픽에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모색 할 수 있었다.

첫째, 위에서 기술한 수사적 그래픽은 기호가 가지고 있는 기호로 인한 차이점을 발생 시킨다. 사용되어진 기표들은 기의를 대체시키는 고유한 기표들을 차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래픽을 통한 읽기 구조에 근접 할 수 있다.

만약 고유성이 없다면 어떤 그래픽 운반체도 비유적인 구조로 연결시키기 힘들 것이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같은 고유적 그래픽의 성격은 해독을 위한 연상 과정에 관여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표면적인 문어적 기술방법을 도상적 그래픽의 활용으로 인해 수사적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문어적 기술방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사적 코드의 등가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소쉬르의 주장처럼 그래픽은 차이를 생산해내며 의미를 전달한다.

둘째, 웹 그래픽은 서술구조에 관여 하면서 프로이드가 주장한 응축(condensation)과 전이(displacement) 작용을 한다. 수사적 코드 형식에 그래픽의 표현은 서술적 또는 상징적으로 전개된다. 이는 응축과 전이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미지의 병치적 배열에서 하나의 단일한 컨셉으로 연결시키는 방법과 무의식적인 우리의 의식 구조를 적절한 도상 그래픽의 배치나 조작을 통하여 하나의 상징화 구조에 적용하는 특성이 그것이다. 이는 문어적 구조에서 전이라 불리는 방법과는 좀 다른 해석적 코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어적 특성에서의 전이는 어떤 단어의 부재적 상황에 대한 참조적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픽적 전이는 텍스트의 기표와 더불어 계유적인 방법 또는 환유를 통해 그럴듯한 환경을 하나 더 제공한다. 또한 아이러니적인 코드를 활용해 이중적 독해를 제공한다.

셋째, 각 수사학적 코드는 그래픽의 활용에 있어서 기저의미의 해석소를 제공한다. 표층구조의 그래픽은 의미전달방법에서 수사학적 코드라는 해석소를 활용해 기호학적 인식의 과정에 작용한다. 해석소는 은유의 경우 끝없는 변형의 사고를 생산하고, 환유의 경우 대체나 교환을 통한 전이적 특성을 계유는 위계구조에 의한 직접적인 연결성을 확보하고 아이러니는 부차적인 반전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 기호 운반체라 할 수 있는 기저의미의 해석소는 그래픽적 도상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도상이 실제적 의미의 현존성을 투명하게 전달했다기보다는 유추(Analogy)를 통한 표현이 수사학적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래픽의 구성에 있어서 수사적 방법을 활용하여 적용 범위를 넓히고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웹 콘텐츠와 인터페이스 커뮤니케이션 모델형성에 있어서 선행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민외7인: The Web, 이·디자인, (2002)
- 김경용: 기호학의 즐거움, 민음사, (2001)
- 김정배: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 디자인, Design Net, (2002)
- 한국기호학회: 영상 문화와 기호학, 문학과 지성사, (2000)
- Paul Kahn · Krzysztof Lenk, 김주환 옮김: 웹사이트매핑, 안그래픽스,(2001)
- Raymond J.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A Wiley Interscience publication, (1984)
- Umberto Eco, 김광현 옮김: 기호- 개념과 역사, 열린책들, (2000)
- 8) Daniel Chandler, "Rhetorical Tropes"
(<http://www.aber.ac.uk/media/documents/S4B/sem07.html>)